

장흥126타워 ‘통일기원’ 상징공간 새단장

정남진 전망대 리모델링… 평화·통일 콘텐츠 재구성



장흥 정남진 전망대가 ‘장흥126타워’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문을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장흥126타워는 2023년 12월부터 약 1년 3개월간 리모델링을 통해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재탄생했다.

장흥126타워는 동경 126도선 위 특별한 좌표 위에 서있다. 서울 광화문을 기준으로 정남쪽에 위치한 상징적 공간으로 의미를 갖는다.

동경 126도선상에 자리잡아 중강진과 하얼빈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이곳은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곳으로, 통일이 시작되는 희망의 좌표로도 알려져 있다.

숫자 126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1은 하나의 민족, 2는 2개의 나라, 6은 여섯 개의 통일 가치(소통, 화해, 교류, 협력, 평화, 기회)를 상징하고 있다.

장흥126타워는 총10층으로 구성되며, 동선은 10층 전망대에서 시작해 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오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장흥=임민기 기자

‘초록에 물든다’ 담양 대나무축제 내달 2일 개막

6일까지 닷새간, 전 세대를 위한 다채로운 신규 콘텐츠

채류형 축제로 전환…하루 종일 즐기고 하루 더 머문다

문화체육관광부 명에 문화관광축제인 담양 대나무축제가 5월2일이 개막, 6일까지 닷새 동안 담양의 대표 관광지인 죽녹원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24번째 열리는 이번 축제는 ‘담양 초록에 물든다-대나무의 향연 with Daenamoo’라는 주제 아래 낮과 밤을 아우르며 머무는 즐거움이 가득한 채류형 축제로 꾸며졌다.

개막식은 5월2일 오후 5시 전남도립대 주차장 일원에서 열린다. 이찬원, 지창민 등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과 함께 드론 라이트쇼가 펼쳐져 축제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올해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고려한 다양한 신규 콘텐츠가 마련돼 모든 세대가 함께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무대는 도립대 주차장 일원으로, 개막식과 공연을 인근 향토음식관에서 여유롭게 즐기며 지역 먹거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다.

축제장 전역에는 담양한우 소비 촉진을 위한 먹거리 부스, 담양 농특산물 판매관, 디지털 판매존, 전시·홍보 부스 등 총 150여 개의 부스가 운영되며,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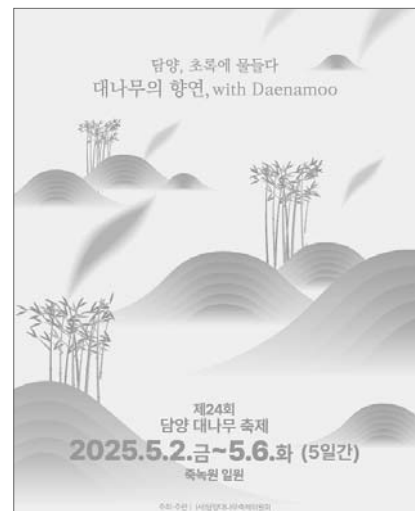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축제를 위해 먹거리 부스에서는 일회용 용기 대신 세척·

소독을 거친 다회용기를 사용해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하루 종일 즐기고, 하루 더 머물며 축제가 주민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죽녹원, 메타랜드 입장료를 환급형 상품권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죽녹원은 축제 기간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야간 무료 개장을 통해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축제 마지막 날인 6일에는 대나무 앙상을 음악회와 한국국악협회 전통국악공연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담양의 별미부터 흥겨운 공연, 다채로운 체험까



지 대나무와 함께 하는 낭만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한다”며 “역사와 문화의 정취가 깃든 대나무의 고장 담양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강성국 기자

함평, 첨단 로봇 장비 보급… 스마트 농업 ‘선도’

방제기·운반차 무선 자율주행 로봇 도입…농작업 효율 극대화

함평군이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 농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함평군은 “고령화 및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최근 첨단 로봇 방제기 및 로봇 운반차 총 15대를 농가에 보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무선 기술을 기반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로봇 장비를 도

입해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작업 시간 단축과 경영비 절감 등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농업 기술 혁신 사례로 평가된다.

장비를 보급받은 한 농업인은 “로봇 방제기를 사용하니 농약에 노출되는 위험이 줄고 방제 시간도 크게 줄었다”며 “고령의 농업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들을 도입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진권 기술보급과장은 “이번 로봇 장비 보급을 계기로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해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줄이겠다”며 “향후 보급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 사항은 보완하고, 기술 확산과 농업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평군은 앞으로도 농업인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 기반의 맞춤형 농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지역 농업 경쟁력 제고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함평=지대만 기자

담양 주요 관광지 무료개방

관내 학생·관광객 임직원 대상

담양군이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담양군은 관내에서 근무하거나 학업 중인 주민들을 위해 담양의 대표 관광지를 무료 개방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무료입장이 가능한 관광지는 죽녹원, 메타세쿼이아랜드, 소쇄원, 한국 대나무박물관, 가마골생태공원으로 담양의 자연과 문화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명소들이다.

특히, 죽녹원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2024년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및 문화체육관광부 ‘로컬 100’에 선정되며 전국적으로도 주목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죽녹원은 8가지 주제의 대숲길을 따라 죽림욕과 족욕 체험, 한옥 숙박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담양의 대표 관광지이며, 메타세쿼이아랜드는 2.1km의 가로수길을 따라 어린이과학체험관, 개마리생태전시관, 어린이프로방스 등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공간이 잘 갖춰져 있다.

또한, 가마골생태공원은 용연 봉추산을 중심으로 영산강의 발원지인 용소폭포와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장관을 자랑하는 천혜의 자연 명소다.

무료입장 대상은 담양군 소재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관내 관광사에 근무 중인 임직원(소방서, 군부대, 교육지원청, 경찰서, 선거관리위원회, 우체국,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교육연수원, 전남동물위생시험소 등)이다.



“화순 봄꽃 축제에 나들이 오세요”

오는 27일까지 진행

‘2025 화순 봄꽃 축제’가 지난 18일 화순읍 남산공원 축제장에서 개장식을 열고 오는 2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구복규 화순군수, 조재윤 축제추진위원장, 오형열 화순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및 각급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개회사를 통해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축제로서의 의미를 되새겼다.

개장식의 하이라이트는 축제장 입구에 열린 축제장 게이트 제막식이었다. 상징적으로 게이트를 개방하는 세레모니를 연출하며, 본격적인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2025 화순 봄꽃 축제’는 4월 27일까지 10일간 여정으로 진행되며 ‘봄날의 꽃, 봄밤의 빛’이라는 주제로 남산공원 및 꽃강길 일대에서 봄꽃 전시·공연·체험·먹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번 축제는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주용현 기자

장세일 영광군수, 장성군 경계서 소나무재선충 방제 지휘

장세일 영광군수는 지난 3일 소나무재선충병 첫 사업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17일에는 장성군 경계 지역인 대마지구의 방제 작업 현장을 직접 살폈다.

대마지구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예방 나무주사 사업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예방 나무주사는 병해충 감염을 사전에 막는 방제 방법으로, 장성군과 영광군 경계에 따라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는 피해 지역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이다.

또한 향후에는 소나무류 대신 편백과 활엽수로 수종을 갱신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강한 숲을 유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재발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대마면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예방 나무주사 사업과 앞으로 추진할 수종 갱신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서종민 기자

